

신생항공사 에어필립 '지역사회 공헌' 주목

지역 청년일자리 창출·지역민 교통편의 증대 등 호평 지자체·대학 등과 상생협약...지역발전 기여 기대 커

호남을 기반으로 한 신생항공사 에어필립이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특히 지역내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교통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민들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한 행보가 눈에 띈다.

23일 에어필립에 따르면 올해 6월 광주공항-김포공항에 이어 지난 8일 광주-제주, 김포-제주 노선을 잇따라 취항한데 이어 전남 인천국제공항 슬

롯(SLOT·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했다.

호남권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직항하는 항공편 개설은 이번이 처음으로, 현재 호남권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을 가기 위해 버스로 4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에어필립은 다음달부터 무안국제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항공편을 하루 왕복 2회, 주 14회 운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오는 11월에는 무안-블라

디보스톡 노선을 시작으로 국제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020년까지 총 12대의 항공기를 도입할 계획이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에어필립은 지역인재 채용에도 적극적이다.

올해 하반기 신입·경력사원 110명을 채용한 에어필립은 추가 항공기 도입과 노선 확대에 45명을 추가 채용할 계획이며, 채용 인자의 40%를 호남 출신으로 선발하고 있다. 또한 에어필립의 270여명 직원 모두 정규직이다.

이같은 공로를 인정받아 엄일석 에어필립 회장은 지난 10일 중앙일보가 주최한 '2018 대한민국 경제리더 대상'

에서 인제경영부문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에어필립은 이와 함께 지자체, 대학교 및 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 협력에 나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남도, 세한대 및 초당대와 함께 산·학·관 업무협약 및 투자협약을 맺는데 이어 지난달에는 무안군, 무안공항과 함께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갖고 에어필립 본사의 무안 이전을 약속했다.

이어 지난 18일에는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사회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임 회장이 자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경제 한 관계자는 "지역청년들이 최악의 취업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에어필립의 지역인재 채용확대가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에어필립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에어필립 한 관계자는 "에어필립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임 회장의 노력이 컸다"면서 "임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coolguy@kdaily.com



●투데이 경제

목포상의, 대중교통운송인력 교육 개강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이한철)와 고용노동부, 전남도, 목포시가 주관하는 '2018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의 대중교통운송인력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이 지난 22일 개강했다.

이 교육과정에는 총 30명이 모집돼 11월30일까지 약 6주간 교육 후 전남 서남권 주요 운송업체와의 채용행사를 거쳐 취업연계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직무교육, 기능교육, 현장교육으로 구성돼 있으며 교육생들에게는 교육비 및 교재비 등이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목포상의 관계자는 "교육과정을 통해 운전종사원이 양성되면 전남 서남권 운송업체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권범기자 coolguy@kdaily.com

호남통계청, 오는 '꿈 찾아 통계를' 개최

호남지방통계청은 광주시교육청이 진행하는 일반고-공공기관 연계 진로진학 프로그램인 '드림러너-꿈 찾아 통계로'를 24일 광주시청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판단과 합리적인 선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실용 통계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데이터 활용부터 통계청 진로·직업체험, 명사특강, 통계 시각화 콘텐츠 실습, 도전 통계 골든벨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통계로 보는 자화상, 도전 통계 골든벨 등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과정으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최환준 기자 choihj@kdaily.com

에어서울, 기내 면세품 구매시 '즉석 복권'

에어서울(대표 조규영)은 오는 12월31일까지 기내 면세품을 구매하면 최대 왕복항공권이 당첨되는 '즉석 복권'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벤트 기간 중 에어서울 기내에서 면세품을 100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에게는 당첨 경품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즉석 복권이 주어진다.

당첨 경품은 1등은 에어서울의 남양야 노선(다낭, 코타카나발루, 보라카이, 홍콩, 씨엠티) 왕복 항공권 1매(2명), 2등은 일본 전 노선 왕복 항공권 1매(3명)다. 당첨 후 원하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노선을 선택할 수 있다.

3등은 최대 8만원 상당의 무료 수하물 이용권(200명), 4등은 최대 3만원 상당의 선호 좌석 이용권, 5등은 기내 면세 할인 쿠폰이 제공되는 등 굵기만 하면 '꽂' 없이 모두 당첨돼 에어서울의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최권범기자 coolguy@kdaily.com

광주상의, 내달 9일 '통상정책 설명회'

광주상공회의소는 오는 11월9일 '2018 정부 통상·무역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상의가 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미중 무역전쟁 등 대외경제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 통상정책 방향을 지역 중소기업 및 수출 지원기관과 공유하고,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의 주요 통상정책 설명회는 2014년 한·중 자유무역협정 협상 설명회 이후 4년 만이다.

산업통상자원부, KOTRA, 무역위원회 등 수출지원기관 관계자가 발표자로 나서 최근 FTA 추진동향, 외국과의 수입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현황과 계획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의에 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지역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컨설

팅, 교육·인력 양성 등 다양한 활동 추진 정책과 FTA 피해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조정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알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지난달 24일 서명한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를 소개하고 중국, 인도 등과의 FTA 개정 협상 및 신규 FTA 추진 동향을 지역기업들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희망자는 광주상의 홈페이지(www.gjcci.or.kr)에서 참가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통상·무역정책 설명회가 지역 통상주체들과 직접적인 소통 확대는 물론, 지역현장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부 통상정책에 반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coolguy@kdaily.com



전남산 농산물로 요리해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부장 박태선(왼쪽)과 농협 도농협동연수원은 23일 영암 신유마을에서 13개 팀이 참가한 가운데 '가을의 맛갈, 전남의 손맛'이라는 주제로 로컬푸드 요리경연대회를 개최했다. /전남농협 제공

BMW 52개 차종 6만5천대 추가 리콜

BMW가 지난 7월 리콜 시행 당시 대상에서 제외했던 52개 차종 6만5천대 차량을 추가로 리콜한다.

이들 차량 상당수는 BMW가 리콜 사유로 지목된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를 똑같이 장착하고 있지만, BMW가 화재 연관성이 낮다고 자체 판단해 리콜 대상에서 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화재 가능성을 발견한 BMW 118d 7천222대를 비롯해 미니쿠퍼 D 컨트리맨·틀림맨·페이스맨 등 52개 차종 6만5천763대에 대해 BMW가 리콜을 결정했다고 23일 밝

혔다.

이번에 추가로 리콜되는 차량에는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EGR가 달린 23개 차종 3만7천97대가 포함됐다.

이들 차량은 '문제 EGR'가 장착됐음에도 당시 BMW가 화재 연관성이 낮다며 리콜 대상에서 제외했던 B47U, B47C, N47C, B37C, N57X 등 5종의 엔진을 사용한 차량이다.

BMW는 이와 함께 '문제 EGR'를 개선한 신형 EGR 장착 차량 중에서도 2016년 12월 완료한 '공정 최적화' 이전 출시된 29개 차종 2만8천666대도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했다.

/연합뉴스

"전남 미래산업 연계 SW융합 교육 힘써야"

SW융합사업단 토론회 성료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단(단장 박복길)이 주관한 '전남 SW융합 교육 확산 토론회'가 최근 여수 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소프트웨어 이야기하자, 전남 SW 교육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전남 SW융합 교육정책의 과제와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SW융합 교육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오창렬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과 손현숙 전남도교육청 미

래인재교과의 인사말과 축사로 시작했다. 이어 전남 SW융합 교육프로그램 개발 사례(장성 중앙초 함창진 교사, 목포 문태고 박호림 교사), SW융합 교육 사례 발표(순천 금당중 양석재 교사)가 있었고, 명사초청 SW융합 교육 특별강연, 열린 토론회 순으로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실장은 'SW와 일, 그리고 교육'을 주제로 기술과 지식의 발달로 인해 생겨난 능력과 직업, 인제상과 교육의 변화와 해외의 SW교육 사례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으로써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광주교대 김정량 교수가 좌장을 맡

은 열린 토론회에는 오은주 전남도교육청 장학관, 정수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지역SW신산업진흥팀장, 김도형 나주 남평초 교사, 박복길 광주·전남 SW융합클러스터사업단장과 특강에 나선 김준연 실장이 패널로 참석해 전남의 미래 산업과 SW융합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미래 창의인재를 양성하고 SW융합 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에너지, 농수축산, 우주항공, 해양조선 등 전남의 미래 산업과 연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김종민기자 kim77@kdaily.com

임야삽니다

당일신속처리
010-6834-7400

나주, 전원주택 부지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거리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

상가빌딩 50% 급처분

금매 전문

아파트 2,300세대 대로변 상가빌딩 {급처분}

---훗가20억 급처분11억(보8,000 월600가능)
일반상업지 대지445㎡, 건평1,544.83㎡

***리모델링90% 공사중
==월세용 및 투자용 최적

금매부동산 [즐거운부동산] 유재관 대표공인중개사 010-6495-3787
광주 동구 제봉로198(대인동312-26)

경매투자

오천경매
010-3605-5000